

강재열 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방송 출연

새해 격려 덕담



강재열 한국원산 부회장은 2월 14일 오전 8시 50분, 한수원 방송을 통해 한수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새해 덕담을 했다. 강 부회장은 방송을 통해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 것은 한수원 직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 준 신뢰와 자부심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고 튼실하게 건설하고 24기의 원전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송 내용 전문이다.

“사랑하는 한수원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원에서 홍보실장과 영광원자력본부장을 지내고 작년 3월부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강재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자력산업계와 한수원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일시 중단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후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상실감으로 실망이 컸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 대표직을 맡아 환경단체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시민참여대표단의 숙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다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후배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 준 신뢰와 자부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5,6호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고 튼실하게 건설하고 24기의 원전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운전 경험을 선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다시는 CLP와 같은 규제 현안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완벽한 예방정비로 원전의 안전에 조금도 흠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원자력산업을 이만큼 키워 오신 수많은 선배님들과 한수원 후배들의 실력과 열정과 정성을 굳게 믿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국가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벅스코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 참여 추진, 국내외 유력 바이어 유치 등 협약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2월 12일 부산 벅스코 회의실에서 벅스코(대표이사 함정오)와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왼쪽)과 함정오 벅스코 대표이사

양 기관은 2012년을 시작으로 격년(짝수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원자력 대표 기관과 기업 참여 추진, 국내외 유력 바이어 유치, 전시회 대외 홍보 등 전반적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2018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은 한국 원자력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널리 알려 동 산업 해외 판로 개척에 이바지하고, 국내외 관련 업체들의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확충을 목적으로 오는 4월 25일(수)부터 4월 27일(금)까지 3일간 벅스코에서 110개사 300부스 규모로 국내외 원자력 기관, 기업들이 참가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2018년판 원자력연감」 편집실무회의 개최

목차 추가 및 내용 보강, 실무 집필진 등 협의



「2018년판 원자력연감」 편집실무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2월 2일(금) 오전 11시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2018년판 원자력연감」 발간을 위한 편집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편집실무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판 원자력연감」 발간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설계인증 현황(APR1400, APR+, EU-APR, NRC DC), 원전 수출 활동 개요, 기장연구로 건설 현황, 외교부의 원자력 지원 활동, 원자력기술수출지원협의회 등 목차 추가 및 내용 보강, 실무 집필진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편집실무위원회는 안중하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정책팀장을 비롯하여, 정종옥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운영실 부장, 김선민 한국전력기술(주) 사업 기획팀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송승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기획팀 책임연구원, 김형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실장, 황구연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장, 김정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정책기획실장, 정홍화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경영기획실장 등 9개 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원자력연감 실무 집필진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5월 경 발간할 계획이다.

전 직원 평창 동계 올림픽 성원



평창 동계 올림픽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한 기념 사진

원자력산업회의는 2월 2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 올림픽 스타디움을 돌아보고 알파인스키를 관람하면서 건국 이래 최초로 개최된 동계 올림픽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최다인 92개국 2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동계올림픽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스노보드 등 6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7위에 올랐다. 🏆